

#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 12주. 문학속 사건들

2차시. 세태를 과감히 표현하다 2: <절화기담>1

### 학습목표

1. 세태소설 <절화기담>을 통해 당대를 이해할 수 있다.
2. <절화기담>이 시대 속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 '세태'를 나타내다



신윤복 <월하정인>  
19세기초  
간송미술관 소장



## '세태'를 나타내다



신윤복 <삼추가연>  
간송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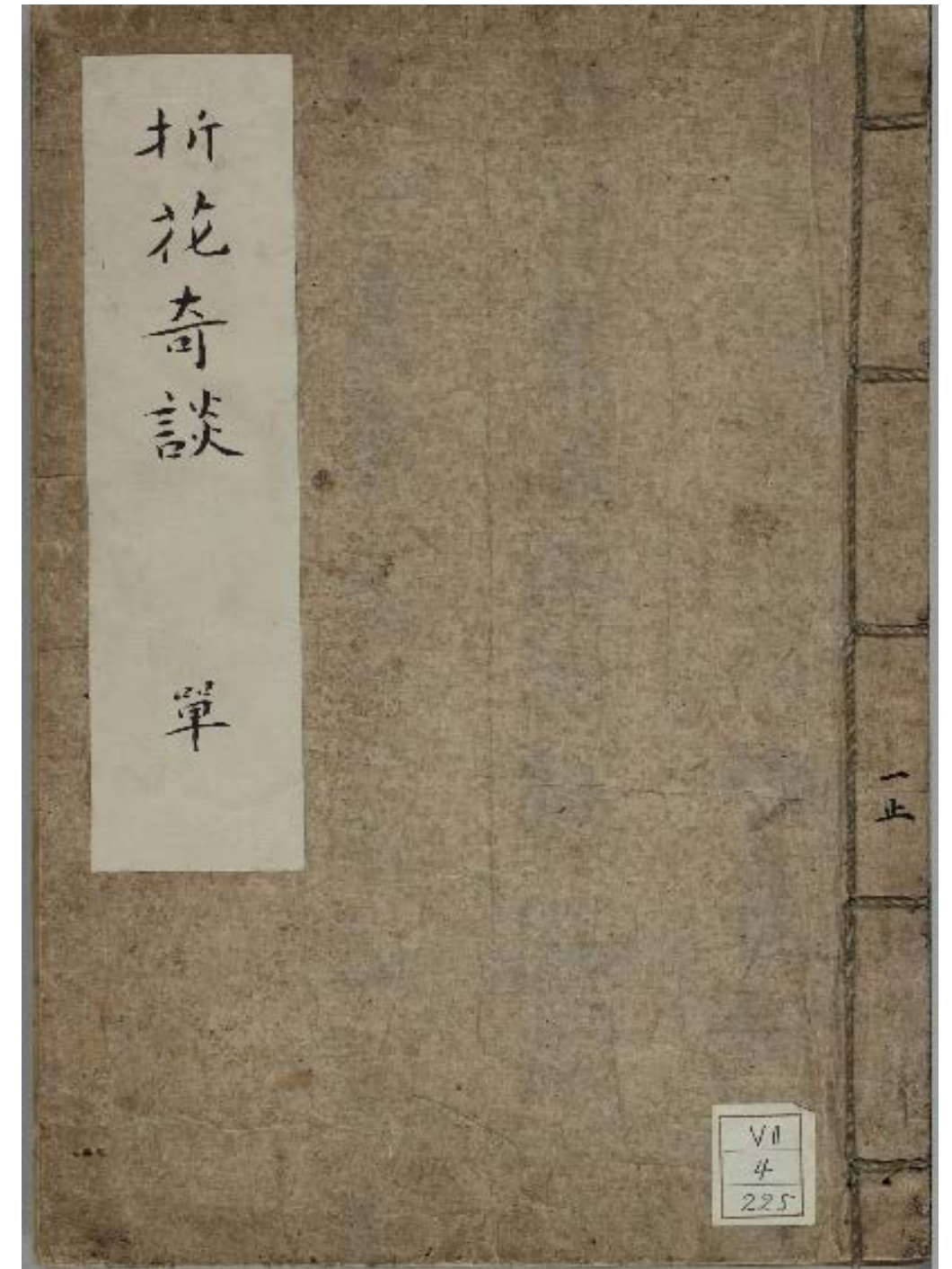
## <절화기담> 작품 개관

- 작가 : 석천주인
- 장르: 고전소설(필사본)
- 문체 : 장회체(3회)
- 창작시기: 1809년경
- 출전 : 일본동양문고 소장
- 주제 : 이생과 순매의 엇갈린 사랑과 욕망
- '석천주인'이 스무 살 때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을 친구인 '남화산인'이 편집하여 소설화한 작품



## <절화기담> 작품 개관

- <절화기담> 뜻: '꽃을 꺾은 기이한 이야기'
- 시공간 배경: 18, 19세기 유흥 문화가 활성화되던 '서울'
- 작품 내용:
  - 한미한 양반 남성과 하층 여성을 주인공으로  
두 청춘 남녀의 사랑과 욕망을 서사화
  - 두 주인공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밀당(총 9번)이  
서울의 세태와 풍속을 배경으로 손에 잡힐 듯 그려  
진다.



<절화기담>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 <절화기담> 작품 개관

### ■ 등장인물 소개

등장인물	성향
순매 (여주인공)	방씨의 여종. 17세의 유부녀. 젊고 아름답다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이라는 관습에 기대어 거래되고 소비되는 유흥적 성격
이생 (남주인공)	시문을 제법 잘하는 선비. 준수하고 고상하며, 풍채가 뛰어나다 순매와 육체적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태움
노파	술집에서 장사를 하며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함 만남의 대가로 돈을 요구(일명 '뚜쟁이')
간난이	순매의 이모. 유부녀. 이생에게 호감 가짐. 술을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함

## <절화기담> 줄거리

: 1792년부터 1794년 한양 모동(지금 서울의 종로 3가 일대)을 배경으로  
이생과 유부녀 순매 사이의 밀고 당기는 사랑 이야기

- 이생이 우물가에서 순매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
- 순매와 한 집에 거주하는 노파에게 다리 놓아줄 것을 제안
- 이생과 순매는 노파의 주선으로 9번 만남(허탕친 횡수도 8번)  
(그 사이 노파, 순매 등에게 노리개값, 약값, 술상 등 물질적 비용 거래)
-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는 남편, 이모 등 주변 사람의 훼방으로 번번히 기회를 놓치다 딱 한번 순매와 하룻밤 꿈같은 하룻밤을 보냄
- 이생은 순매에게 '초가집 한 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나 순매가 남편을 들어 거절  
(순매의 숙내가 비로소 드러남)



## <절화기담> 줄거리

한 미인이 있었는데 이름을 순매(舜梅)라 하고 나이는 17살로 얼굴을 꾸미지 않아도 온갖 자태가 부족한 데가 없었고, 몸은 단장하지 않아도 온갖 아름다움이 배어 나왔다. 버들가지 같은 가는 허리, 복숭아 빛 뺨, 앵두 같은 입술, 윤기 나는 검은 머리는 진정 절세미인이었다. 그녀는 방씨의 여종으로 시집 가서 머리를 엮은 지도 벌써 몇 해가 되었다. 이생이 한 번 그 얼굴을 본 뒤로 녀이 나가고 마음이 흔들려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중략)... 깨어 있을 때면 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낙심한 가운데 마음속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았다.





## <절화기담> 본문 중

어느 날, 종 하나가 대나무가 그려진 은 노리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이건 방씨 집 여종이 옷고름에 매고 있던 물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잠시 전당잡아 가지고 있는데 상공께서 저 대신 상자 속에 보관해 주십시오.”

이생이 속으로 뽕 듯이 좋아하며 생각했다.

‘꿈에도 그리던 사람의 좋은 물건이 생각지도 않게 내 손에 들어왔구나. 혹시 이걸 빌미로 만날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을까?’



## <절화기담> 본문 중

이생이 은 노리개를 만지작거리며 애석해 마지않다가 **즉시 약간의 돈을 노파에게 주며 말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물건을 전당잡고 싶어서 노리개를 받아두는 게 아닐세. **내 뜻은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으니**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기 바라네.”

노파가 응낙하고 갔다. 이생은 노리개를 가져다가 대나무 상자에 간수해 두고, 노파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뒤에 노파가 다시 와서 웃으며 말했다.

“일이 이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하늘이 반드시 들어주는 법이지요. **이 늙은이가 열심히 혀를 놀려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설득한즉 순매가 상공께서 요즘 보이신 은근한 정에 대해 듣고 흔쾌히 허락하더군요.**”



## <절화기담> 본문 중

이생은 이때부터 노파가 부르러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하루는 이생이 근교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나갔다가 이틀 밤을 자고 돌아왔더니 노파가 길에서 맞으며 말했다.

“아쉽고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녁에 순매가 틈을 타서 왔기에 바로 상공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상공께서는 출타하셨더군요. 좋은 인연을 그르치다니 이렇게 애석할 데가 있나! 순매는 이 늙은이와 술 몇 잔을 마시며 밤이 늦도록 회포를 풀면서 헛되이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 <절화기담> 본문 중

“속담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죠. 돈이 많은즉 좋은 술로는 간난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잘 생긴 남자로는 복련이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일을 도모한다면 아마 열에 한 둘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요. ...(중략)... 그런데 이번 상공께서는 진실한 군자임을 알았습니다. 약간의 돈을 제게 맡기시면 상공을 위해 일을 주선해 보지요.”(같은 책, 44쪽).”





## <절화기담> 감상 및 이해

- <절화기담>은 하룻밤 스치듯 지난 유희적이고 소모적인 사랑
- 기존의 '열녀' 이야기에서 '불륜'이 소재
- 불륜의 여성이 처벌되지 않고 자신의 가정으로 컴백
- '하층계층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은 특징
- 당시의 소비적이고 유희적인 서울의 시정문화와 세태가 잘 드러남